

문화중심도시 광주, 대형도서관 하나 없다

‘열람석 2000석·40만권’ 이상 0곳... 1000석 공공도서관 2곳 뿐 윤상현 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한 교육인프라 지원 필요” 지적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 도시의 문화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형도서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전남에는 ‘열람석 2000석 이상’ 규모이거나 ‘장서 40만 권 이상’을 보유한 대형 공공도서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공도서관의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위한 교육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출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도서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열람석 ‘1000석 이상’ 공공도서관 수는 전국에 총 41개관으로 서울에 3개관, 인천에 4개관, 경기도에 12개관 등 19개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광주는 무등도서관(북구)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서구) 등 2곳, 전남은 나주공공도서관과 장성공공도서관 등 2곳이다. 그나마 대구는 5곳이며, 경남·경북이 각 3곳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전남의 도서관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열람석 2000석 이상의 대형 도서관은 부산 시민도서관(진구), 인천중앙도서관(남동구), 대전

한밭도서관(중구), 경기안양석수도서관 등 단 4곳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를 비롯한 나머지 13개 시도에는 이같은 대형도서관이 없다.

이와 함께 도서자료 40만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서울 3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도, 충북 등에 있었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서자료 10만권 이상 공공도서관은 전국에 403개관이 있지만 서울 44개관·인천 10개관·경기에 134개관 등 절반 가까이 수도권에 분포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를 비교하면 독일 1만 1151명, 영국 1만 5465명, 미국 3만 4301명, 일본이 3만 8902명이었지만 우리나라는 4만 5723명이 됐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교육문화 인프라’를 전국에 고르게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도서소외 지역에 대형도서관을 우선적으로 건립하고 도서자료를 확충하는데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키움뜰 놀이터’ 이용하세요 20일 오후 광주유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중인 영유아 놀이 체험공간인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키움뜰 실내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모래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별 총총’ 청춘발산마을서 음악회로 스트레스 ‘홀홀’

광주 서구 오늘 ... 유튜브 생중계

양동 청춘발산마을에서 밤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시 서구는 21일 오후 6시 30분 서구 양3동 청춘발산마을 전당에서 ‘빛나는 청춘발산마을, 별이 빛나는 밤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음악회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낸 시민들을 위해 깊어가는 가을의 설렘을 담은 예정이다.

주민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무대는 조형기(색소폰), 나리(플루트), 김수진(바이올린), 권준희(통기타)의 다채로운 연주로 구성된다.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 비치와 거리두기 관망 시행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장에서 보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광주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밤하늘 별을 바라보며 감미로운 클래식 악기와 신나는 통기타 공연을 통해 주민들이 가을 낭만을 맘껏 즐기며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북구, 지역사회 인권리더 양성

제7기 주민인권학교 참여자 모집

광주시 북구가 인권중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권리더 양성에 나선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제7기 북구 주민인권학교’에 참여할 주민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주민인권학교는 오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강의는 27일 굿네이버스 광주전남본부 한재명 강사의 ‘아동권리와 아동학대’를 시작으로 ▲상호문

화이해와 이주민 인권 ▲장애인 인권과 수어체험 ▲성평등한 공동체를 기획하는 시민의 힘 등 총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특히 11월 11일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 등 현장체험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북구청 행정지원과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가능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교대 대학원 독서토론논술교육 신입생 모집

광주교육대가 교육부 인가를 받아 교육대학원에 독서토론논술교육 전공을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독서토론논술교육 전공을 대학원 교육과정에 정식 개설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고,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접수한다.

교육과정은 글을 읽고 쓰고 해석하는 기본 지식을 토대로 독서지도, 토론지도, 논술지도에 요구되는 통합적 지식, 실제적 지식, 임상적 지식의 전수와 탐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장교육, 직업교육, 가정교육,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독서토론논술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독서토론논술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수강생들은 이 과정 수료와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독서학회에서 발급하는 독서교육전문가 3급과 2급 자격증을 받게 된다.

황운한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장은 “지역 사회에 독서토론논술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영역에서 초·중·고·대학생을 가르치는 다양한 교사들을 재교육한다”며 “추수지도도를 통해 독서토론논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충장로 웨딩의 거리 귀금속 가게를 살려라”

광주시 동구 사업설명회 개최

광주시 동구가 충장로 웨딩거리의 귀금속 가게(충장주얼리 집적지구) 살리기에 나선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 19일 충장로 4·5가 일대에 밀집해 있는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장주얼리 소공인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공동기반시설 구축지로 선정된 충장주얼리

리 집적지구는 1965년부터 자생적으로 생긴 업체들이 모여 현재 65개 업체가 밀집해 있다.

이곳은 광주 주얼리 산업의 45%(동구 82.3%)를 차지하는 오랜 전통과 전문성을 자랑한다.

동구는 총 19억 원(국비 10억원·지방비 9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전시판매장 ▲공용 장비실 ▲교육장 ▲온라인 마켓 운영시스템 등을 집적지구에 마련하고, 소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등록금은 내릴까?
청년취업이 풀릴까?

신문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오답이 넘쳐나는 사회
신문은 당신에게 정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